

금호타이어 올 임단협 워크아웃 졸업 분수령

3년째 흑자 불구 협상 순탄치 않아 갈등 재발뻔 노사·지역경제 모두 손실

“금호타이어가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끝내고, 올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까.”

지역 경제계가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화두다. 지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전망도 밝다. 하지만 지난 3년 연속 파업을 주도한 노조의 협조 없이는 힘든 문제다. 지난해 발생한 파업은 한 달만에 16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혔다. 이에 따라 올해 단체교섭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1일부터 매주 2회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워크아웃 4년째인 올해 노사 모두 이번 단체교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커서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8% 인상과 2012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금호타이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은 쉽지 않다. 2010년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안’과 ‘노사동의서’에 따라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인상은 불가능한 상황

이다.

성과급 지급도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1개월 여의 파업으로 채권단의 시선이 좁지 않은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매년 파업을 일삼으며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광주공장도 곡성공장이라는 국내 생산시설의 기반을 둔 우리 지역에서 두 공장의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파업이 극심했던 지난 2011년 3월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공급이 끊기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스포티지R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잇따라 관련 협력업체도 조업을 중지했던 사례는 지역경제와 밀접하다는 반증이다.

광주시 통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11년 기준 광주 총 생

산액의 2.5%를 차지한다. 기아차, 삼성전자에 이어 세 번째다.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따지면 27.3%나 된다.

그럼에도 생산량은 정체수준이다. 워크아웃 기간 설비투자가 어려운데다 파업으로 라인 가동 중지가 다반사인 탓이다.

실제 2010년 3004만6000본이었던 타이어 생산량은 2012년 2915만3000본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775억 원에서 2조4184억 원으로 늘었다. 영업을 잘했지만 생산량은 그에 못 미친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올해 ‘워크아웃 졸업’을 하게 되면 먼저 임금인상 및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설투자가 가능해 흑자규모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자구계획안의 성실 이행과 빠른 갚는 노력으로 2010년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고, 2011년과 지난해에는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올해도 지난해처럼 노사갈등을 일으킨다면 워크아웃 졸업은 물론 흑자를 지속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지역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교섭 이후 노사가 함께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통에 힘쓰고 있다”며 “워크아웃 기간의 고통이 졸업으로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고객 행복나눔바자회’ 시민 2000여명 몰려 나눔 실천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이 개최한 ‘고객행복나눔 바자회(사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에서 열린 이날 바자회는 금호고속 임직원들이 의류와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60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해 진행했으며 2000여 명의 시민이 몰려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한 시민은 “마음에 드는 물품을 싸게 산 것보다, 내 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는 점이 뿌듯했다”며 “나

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남은 물품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할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지난 2006년부터 직원 급여 일부를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급여절전모으기’ 운동과 임직원이 기증한 도서를 판매하는 ‘고객나눔서점’을 통해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정부, 자영업자도 관심 가져달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 소상공인위원회’ 회의

“충장로의 브랜드 의류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받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한 상품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 사용처 제한이 필요합니다.”(손중호 양동복개상사 대표이사) “전세버스는 근로자 출퇴근 수단은 물론 초·중·고교생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데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설치를 도와주세요.”(나승태 광주전세서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손톱 밑 가시뽑기’는 소상공인에게 더 절실히 보인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및 애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 ‘광주전남 소상공인위원회’ 회의에서 업종별로 모인 소상공인 40여 명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정부의 무관심

아래 지원과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정종욱)는 대·중소유통업간 동반성장, 사업조정제도 보완, 소상공인 관련 법률 현황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하반기에도 쉽게 회복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을 막기 위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범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중용 공장장을 비롯한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원대표들이 23일 광주공장에서 ‘제2차 결의대회’를 열고 62만대 증산 촉구 결의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임직원 뭉쳐 62만대 증산 나서자”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협력업체 400여명 2차 결의대회

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공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원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였다.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용)은 23일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전 간부사원과 현장관리자 및 협력업체 임직원 400여 명이 모여 ‘제2차 증산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연되고 있는 2공장 증산과 3년째 지지부진한 3공장 붕고 트럭 증산 일정의 조속한 추진 및 성공적인 증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차 결의대회에 이

어서 두 번째다.

생산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결의대회 대표 3명은 ▲모든 역량을 집결해 증산목표를 반드시 달성 ▲62만대 증산을 통한 적기 공급으로 고객사량 보답 ▲지역경제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중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특강을 통해 “광주공장 62만대 증산이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된다”가 못박은 뒤 “오늘 제2차 증산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증산 성공의지를 새삼 깨닫고 광주공장과 협력업체 전 임직원들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심정

으로 증산 추진을 위해 나서자”고 강조했다.

증산이 미뤄지면서 광주공장은 현재 원대 계획과 비교, 월 8000여 대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9만 여대에 이르는 국내의 주문 적체물량 해소에도 비상이 커진데다 노조와 인원협회의 늦춰져 지난 2월 채용공고 이후 1달째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3월 제1차 증산 촉구 결의대회 이후부터 ‘즐거운 상상 행복한 도전 62만대 증산’이라는 리본띠를 가슴에 달고, 라인과 공장에 증산 성공을 기원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증산 성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69.19 (-24.64)	코스닥지수 569.34 (-4.91)	금리 (국고채 3년) 2.61% (0.00)	원·달러 환율 1128.70원 (+14.70)
---------------------------	-------------------------	-----------------------------	------------------------------

‘제1회 해피니스-광주은행 오픈’ 골프대회

광주은행이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23일부터 나흘간 ‘제1회 해피니스-광주은행 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총상금 5억 원(우승상금 1억 원)을 놓고 벌이게 될 이번 대회는 23일과 24일 예선전을 거쳐 25일과 26일 본선까지 총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이상희, 강경남, 김대섭, 박상

현 등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상위 순위자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J골프 채널에서 23일부터 4일 동안 이번 대회를 생중계한다.

김준원 광주은행 홍보 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골프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세 신고 31일 마감... 불이익 피하려면

작년 폐업 사업자도 신고 필수 근로자 다른 소득 있을때 합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들을 속지하면 큰 도움이 된다.

▲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미신고=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도 면제 받는 것으로 오인=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도 소득 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확정 신고=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함=1주택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

▲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면 7월 1일까지 신고해도 될=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임.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OPEN 요일별 D.C EVENT 50%

OPEN EVENT 5월20일(월), 21(화), 22(수), 23(목), 24(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 달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on :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 5,400</p>	<p>2. 매콤한 요양자 필라프 Tue : YONAMIA Spicy sauce pizza 7,900 → 3,950</p>	<p>3. 웨프가 만든 수제 맥갈비 스테이크 Wed : Made hospital steak chef 10,800 → 5,400</p>	<p>4. 웨프가 만든 수제 맥갈비 스테이크와 구운 마늘 필라프 Fri : Made hospital steak & beef burger steak and Pita 14,000 → 7,000</p>	<p>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p>		<p>5. 웨프가 만든 수제 맥갈비 스테이크와 구운 마늘 필라프 Sat : Made hospital steak & beef burger steak and Pita 14,000 → 7,000</p>

광주·전남 프리모남가발

大山 大 山 大 山

광주·전남 기능장1호

23년간
약 1만명
기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신제품 기적궁합가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남가발